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 죄책감을 중심으로 -

김경희

연세대학교 아동 · 가족학과

본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의 특징을 파악하고, 죄책감 특징에서 발달경향과 성차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310명, 중학교 1, 2학년 남녀 201명,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208명 총 719명이었다. 죄책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5개의 이야기를 사용한 자료를 기초로 이를 내용분석과 통계적 분석으로 처리하였다. 죄책감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적-별 지향에서 내면화된 도덕 표준으로 발달되는 정서라는 것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확실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자기표준을 갖는다는 것, 그리고, 죄책감은 약속 불이행, 규범위배, 부정행위, 거짓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에 기인한다는 것이 규명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와 죄책감의 개념화 및 측정도구 개발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아동, 청소년, 도덕적 정서, 죄책감, 정서귀인,

Hoffman(1983)이 도덕적 정서를 인간행위의 가장 강력한 동기유발자라고 시사한 바와 같이, 도덕적 정서(moral affect or moral emotion)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사건과 그와 관련되어 생기는 인지적 정서에 근거하는 고등수준의 정서라고 정의된다 (Buck, 1999 ; Hoffman, 1998 ; Walker & Pitts, 1998).

오래 전부터 철학자들은 정서가 도덕적일 수 있는지 여부와 정서가 고등수준의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정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논의하여 왔다. 과거에는 정서란 선천적으로 개인적이고, 양극화되고, 편견적인 조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개인의 평가와 인지를 왜곡시키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사고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1) 이 연구는 2001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2) 이 논문에 대한 연락은 mkhkim@yonsei.ac.kr로 하기 바람.

최근, 정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덕적 특징을 가지며, 도덕적 행동을 유발시키고, 부도덕한 행동을 제거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 의사소통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Ben-Ze'ev, 1997 ; Blum, 1980). 죄책감(guilt), 수치심(shame), 공감(empathy) 등 의 정서는 도덕성에서 기본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죄책감은 본질적인 도덕적 정서로 알려지고 있다.

정서이론가들은 정서를 기본정서와 비기본정서(nonbasic emotions, Draghi-Lorenz, 2001)로 구분하고 있다. 비기본정서로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표준을 위반했을 때, 개인적인 반성에서 유래하는 데 비해서 수치심은 일반적인 위반행위와 실패에 대한 타인의 객관적, 공적인 관찰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가정되고 있다 (Hogan & Cheek, 1983). 그러나 어떤 조건에서는 죄책감을 수치심의 하위 개념으로 가정하기도 한다 (Tompkin, 1987). Darwin(1872)은 수치심, 수줍음, 죄책감을 동의어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론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별하는데 있어서 초기 이론가들(예컨데, Ausubel, 1995 ; Benedict, 1946 ; Freud, 1930/1961)은 사적-공적, 그리고 내적-외적차원의 초점을 맞추었다. 즉, 죄책감은 개인의 도덕적 수준에 맞추어 자아와 내재화된 양심간에 생기는 사적인 사건에 대한 반응인데 비해서, 수치심은 개인적 결점이 공적으로 노출되었거나 공적인 비난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구별은 수십년이 지난 후 비판을 받고 있다(예 : Lewis, 1971 ; Lynd, 1958 ; Piers & Singer, 1958 , Tangney,

1990). 이들은 자아의 역할이나 귀인에 의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구분하고 있으며, 수치심에 대한 개념화 및 측정에 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최근 수치심은 자기와 관련된 혐오적 사건 때문에 야기된 낙심에 빠져있고,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정서라고 정의되고 있다 (Ferguson & Stegge, 1998, p. 20).

죄책감과 수치심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아에 대한 강조의 정도에 있다 (Lewis, 1971 ; Tangney, 1998).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수치심을 경험하는 것이 죄책감 경험보다 고통스럽고 강하며 타인의 의견에 민감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죄책감은 수치심보다 덜 고통스럽고 덜 황폐적인데 이는 죄책감을 경험할 때 일차적 관심이 자아와는 다른 특별한 행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Ferguson et al., 1991 ; Tangney, 1992). 죄책감은 긴장, 후회, 양심의 가책의 느낌을 포함하지만 개인의 핵심적 정체성(core ident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iedenthal, Tangney & Gavanski, 1994). 죄책감과 수치심은 흔히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아동들은 이들을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Ferguson et al., 1999).

역사적으로 죄책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은 Freud의 심리역동적 이론 체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Freud, 1930/1961). 죄책감에 대한 Freud의 개념정의는 신경증(neuroticism)의 근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죄책감은 초자아의 발달에 중요한 외디푸스 복합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결과라고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역동적 이론에서는 죄책감을 다양한 일상경험의 결과로 보고, 구인(construct)은 도덕성, 성격 및 적응에 대한

이론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심과제로 남아있다. 예컨대 Erikson(1963)은 죄책감은 솔선감(sense of initiative)을 발달시키지 못한 결과에서 생긴다고 논의하였으며, Klein(1948)은 죄책감을 사랑과 배상(reparation)문제의 중추라고 보았고, Lewis(1984)는 죄책감 역할을 어머니-아동간의 분열로 생긴 감정적 유대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기술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서이론에서는 죄책감을 개인이 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Izard(1977)는 죄악감의 잠재력을 자아와 사회적 행위가 갖는 문화적 규칙에 관한 책임감과 함께 생기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Roseman(1984)은 죄책감을 자아의 행위에서 초래되는 부정적 정서라고 특징 지었으며, 죄책감의 인지적, 의도적 측면을 강조했다. Weiner(1985)는 죄책감을 개인의 의도적 행위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가정했고, De Rivera(1984)와 Scheff(1984)는 타인과의 관계에 적응하는 죄책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에 관한 몇몇 현상학적 연구에 의하면(Lewis, 1971 ; Lindsay-Hartz, 1984 ; Tangney, 1990 ; Wicker, Payne, & Morgan, 1983) 죄책감은 불편한 경험인데 반해서 수치심 경험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죄책감과 수치심 경향성은 발달, 성격 및 임상심리학에서 중요한 개인차 변인이라는 것이 시사되고 있으며, 적당한 수준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건강한 개인에게 적응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죄책감의 개념정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도구도 다양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죄책감은 투사법(Miller & Swanson, 1966), 면접법(Sears, Maccoby & Levin, 1957), 자기보고식 목록표(Buss & Durkee, 1957), 및 평정척도 (Moulton, Bernstein, Liberty, & Altucher, 1966)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대부분의 자기 보고식 측정도구는 죄책감의 경험을 정서의 하나로, 또는 성격차원으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지만 어떤 척도들은 도덕적 표준(예 : Mosher, 1968)을 평가하므로서 경험된 죄책감을 지각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척도들은 도덕적 함축성을 갖는 행동이 유발되는지 여부를 물어서 죄책감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London, Schulman, & Black, 1964). 이러한 죄책감 척도들은 대부분 청소년, 청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아동을 위한 측정도구는 거의 없다. 이는 죄책감의 개념정의가 이론화되지 못하고, 따라서 측정도구로서 죄책감 척도들의 신뢰도 뿐 아니라 타당성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도덕적 정서로서 죄책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죄책감에 대한 개념화 연구(Ausubel, 1955 ; De Rivera, 1984 ; Erikson, 1963 ; Freud, 1930/1961 ; Hogan & Cheek, 1983 ; Izard, 1977, 1991 ; Klein, 1948 ; Roseman, 1984 ; Scheff, 1984 ; Tompkin, 1987 ; Weiner, 1985)이며, 또 다른 영역은 측정연구이다 (Buss & Durkee, 1957 ; Kugler & Jones, 1992 ; Miller & Swanson, 1966 ; Mosher, 1966, 1968 ; Moulton, Bernstein, Liberty, & Altucher, 1966 ; Sears, Maccoby, & Lewin, 1957 ; Tangaey, 1990, 1992).

국내에서는 아동(김경희, 1997), 청년(김경희, 1996)을 대상으로 죄책감의 원인과 표현 등을 다룬 개념화 연구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주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리적 장애와 관련시켜 수행된 임상심리분야의 연구들이 있다 (류설영, 1999 ; 심종은, 이영호, 2000).

이상과 같은 국내·외 연구 동향과 문제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한국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도덕적 정서로서 죄책감의 실체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죄책감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하게 한다.

본 연구는 죄책감의 원인과 정도를 기초로 (1)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의 특징을 규명하고, (2)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에 있어서의 발달 경향과 성차를 규명하며, (3) (1)과 (2)의 결과를 기초로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죄책감을 개념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3)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죄책감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중학교 1, 2학년 남녀,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학생 719명이었다. 초등학생 중 4학년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론적 근거는 이전 연구 결과(김경희, 1997) 4학년 이전에는 죄책감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기초한다.

다음 <표 1>은 학년별, 성별로 본 연구 대상자 수를 제시한 것이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면접형 질문지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Mosher(1966, 1968), Tangney(1990, 1991), 그리고, Arsenio, Shea와 Sacks(1999)가 제작했던 목록표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한국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이웃, 친구, 교사, 부모, 제 삼자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대상자가 어떻게 느끼는지의 여부(정서의 종류),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표 1. 학년별, 성별에 따른 조사대상자 수(N)

성별	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54	53	61	51	44	41	44	348
녀		44	50	48	51	55	66	57	371
계		98	103	109	102	99	107	101	719

대한 근거(정서 귀인), 그리고 그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답하도록 되어있다.

죄책감을 느끼는 정도, 즉 지각된 느낌의 정도는 Likert식의 5점 척도에 표시하게 되며,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1점으로 점수가 높아질수록 느낌이 없는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 1>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화분을 돌보아줄 것을 부탁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

<이야기 2> 시험 볼 때, 모범학생이 친구들의 위협 때문에 시험 답안을 보여준 상황.

<이야기 3> 손수레를 힘들게 끄는 노인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다른 아저씨가 노인을 도와주는 것을 목격한 상황.

<이야기 4> 어머니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하루종일 논 상황.

<이야기 5> 오래 사귀어 온 친구와 싸움을 하고 심한 말을 한 상황.

절 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0년 10월과 11월에 걸쳐 2명의 자료 수집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과 담임의 협조를 얻어서 반별로 따로 실시되었으며 소요시간은 30~40분이었다.

분석 방법

질문지에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느낌의 종류와 느낌의 귀인을 내용 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내용분석은 본 연구자가 범주화한 것으로 범주화 과정에서 본 연구자와 다른 평정자(전공교수) 두 사람간의 일치도는 95%이었다.

범주화 가운데 죄책감 범주는 “미안하게 느낀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후회한다”를 포함시켰으며, 상황귀인 범주는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로서, 이야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 1 : “몸이 아파서”, “새로 화분을 사다 놓으면 된다” 등

이야기 2 : “시험지 보여주는 것은 보통 이니까”, “선생님은 모를테니까”,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다”

이야기 3 : “피곤해서”, “노인이 부탁을 하지 않아서”, “집이 멀어서”

이야기 4 : “엄마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보통이니까”

이야기 5 : “친구는 많으니까”, “싫으면 해 어지면 되니까”

“기타” 범주에는 “모르겠다” 와 무응답을 내용분석 결과 정서 종류와 정서 귀인의 각 범주에 반응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이 빈도에 있어서 학년차 및 성차 여부는 카이제곱(χ^2)으로 처리되었다. 학년별·성별에 따른 정서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이원변량분석으로 처리되었다.

결 과

다섯 가지 이야기 별로 정서의 종류, 정서의 귀인을 제시하고, 정서의 정도는 <이야기 5>의 결과 후에 제시하였다.

이야기 1 : 이웃 어른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학교 2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죄책감 비율(96.5% : 90.9%)을 보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24.2%)이 남학생(7.3%)보다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서 느끼는 정서의 귀인에서 학년간의 차는 있었으나($\chi^2 = 71.71$, $p < .001$), 성차는 없었다(표3 참조). 귀인은 약속 불이행(52.6%)이 가장 많았고, 타인 소유물경시(16.0%), 신뢰감 위

표 2. 이야기 1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의 종류

범주	학년 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죄책감		44	81.5	35	79.5	44	83.0	42	84.0	51	83.6	37	77.1	45	88.2	47	92.2	38	86.4	45	81.8	36	87.8	49
공포		6	11.1	9	20.5	6	11.3	7	14.0	2	3.3	8	16.7	3	5.9	4	7.8	2	4.5	7	12.7	3	7.3	16
죄책감없음		3	5.6	0	0.0	2	3.8	0	0.0	6	9.8	2	4.2	1	2.0	0	0.0	4	9.1	1	1.8	2	4.9	1
기타		1	1.9	0	0.0	1	1.9	1	2.0	2	3.3	1	2.1	2	3.9	0	0.0	0	0.0	2	3.6	0	0.0	0
계		54	100.0	44	100.0	53	100.0	50	100.0	61	100.0	48	100.0	51	100.0	51	100.0	44	100.0	55	100.0	41	100.0	66
χ^2				4.65			2.04			6.71			3.19			6.02			5.67			2.74		
				n.s.			n.s.			n.s.			n.s.			n.s.			n.s.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31.89$, $p < .05$

이웃 성인과의 약속 불이행 상황의 경우 학년간 차이는 있었으나($\chi^2=31.89$, $p < .05$),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84.6%), 공포(10.4%), 죄책감 없음(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죄책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94.1%),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17.8%)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성차는 없었으나, 고등

학교 2학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배(10.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중학교 2학년의 경우 약속 불이행(62.6%)과 상황귀인(13.1%)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았고, 타인 소유물 경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다른 학년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26.2%), 신뢰감 위배 귀인 비율은 고등학교 2학년(15.8%)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았다. 별에 대한 공포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14.3%)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았다.

표 3. 이야기1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귀인

범주	학년 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약속불이행		22	79	12	74	52	24	82	05	42	33	52	15	52	09	82	95	82	63	43	86	52	06	04	66	42	55	92	95
신뢰감위배		2	73	5	41	1	91	4	08	9	84	3	36	6	81	7	73	5	41	3	55	6	64	9	63	4	19	21	12
생명경시		5	39	1	32	2	83	1	02	4	66	0	00	2	93	2	93	0	00	4	37	1	42	2	03	3	86	3	35
타인소속물 경시		11	40	8	29	61	23	11	02	21	79	11	92	5	89	9	61	3	86	5	19	4	89	7	61	3	86	01	51
벌에대한공포		9	79	5	41	4	57	4	08	4	66	2	24	3	95	5	89	0	00	0	00	2	94	3	54	1	32	0	00
상황귀인		3	65	4	19	1	91	1	02	8	13	4	38	9	61	0	00	6	63	5	72	2	94	4	16	5	41	3	35
기타		2	73	0	00	4	57	1	02	0	00	3	36	1	02	0	00	2	54	2	63	1	42	1	51	4	19	0	00
계		45	00	44	00	35	00	05	00	16	00	84	00	15	00	15	00	44	00	55	00	14	00	66	00	44	00	75	00
X ²		6.79				4.95				10.67				11.89				7.34				0.25				12.27			
		n.s.				n.s.				n.s.				n.s.				n.s.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71.71$, $p < .001$

성차를 나타난 것으로 신뢰감 위배 비율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년 여학생보다 (11.4% : 5.5%),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21.1% : 9.1%)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별에 대한 공포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16.7%)이 여학생(11.4%)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야기2 : 친구들 위협으로 시험지를 보여준 경우

이야기1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 귀인이야기2에 반응한 정서의 종류 및 정서귀인의 빈도와 백분율은 <표4>, <표5>에 제시되었다.

이야기2의 상황에서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chi^2 = 93.83$, $p < .001$). 즉 죄책감과

공포심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는 죄책감보다 분노를 느끼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죄책감(54.9% : 45.1%)과 분노(23.5% : 17.6%)를 보이는 비율이 많았으며,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죄책감(46.3% : 25.8%)과 공포(19.5% : 13.6%)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높은 분노 비율(50.0% : 19.5%)을 보였다.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여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분노”를 가장 많이 느꼈다는 것은 유의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친구들의 위협으로 답안지를 보여주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의 원인을 부정행위로 귀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59.8%), 그 다

표 4. 이야기2에 나타난 학년별 성별에 따른 정서의 종류

범주	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죄책감		53	86	42	55	72	95	03	06	43	75	52	13	32	13	82	95
공포		01	53	01	72	21	62	21	02	41	02	6	52	5	89	01	69
분노		3	65	6	63	9	01	5	00	5	28	01	82	9	67	21	53
죄책감없음		5	39	3	86	4	57	2	04	5	28	5	40	01	69	0	00
기타		1	91	1	32	1	91	1	02	3	28	2	24	4	87	1	02
계		45	00	44	00	35	01	05	00	16	00	84	00	15	00	44	00
X ²		2.56		1.88		4.96		14.39		5.44		10.24		4.10			
		n.s.		n.s.		n.s.		p<.01		n.s.		p<.05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93.83$, $p < .001$

표 5. 이야기2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구인

범주	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부정 행위		32	59.3	30	68.2	30	56.6	30	60.0	32	52.5	30	62.5	21	41.2	38	74.5	25
별에대한공포		5	9.3	5	11.4	10	18.9	8	16.0	9	14.8	3	6.3	4	7.8	4	7.8	1
따돌림에대한 공포		4	7.4	3	6.8	3	5.7	7	14.0	9	14.8	7	14.6	8	15.7	1	2.0	3
부정 행위 참여위협		4	7.4	2	4.5	5	9.4	0	0.0	3	4.9	4	8.3	4	7.8	6	11.8	1
상황구인		6	11.1	2	4.5	4	7.5	2	4.0	4	6.6	3	6.3	10	19.6	0	0.0	10
기타		3	5.6	2	4.5	1	1.9	3	6.0	4	6.6	1	2.1	4	7.8	2	3.9	4
계		54	100.0	44	100.0	53	100.0	50	100.0	61	100.0	48	100.0	51	100.0	44	100.0	55
X ²		2.08		8.41		3.91		21.41		2.23		6.67		6.86				
		n.s.		n.s.		n.s.		p<.001		n.s.		n.s.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44.63$, $p < .05$

음으로 상황귀인(9.9%), 따돌림에 대한 공포(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는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chi^2 = 44.63$, $p < .05$). 즉, 고등학교 2학년(65.3%)과 초등학교 4학년(63.3%)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황에서 죄책감을 가장 많이 표현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은 벌에 대한 공포(17.5%)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따돌림에 대한 공포(14.7%)를, 중학교 2학년은 상황귀인(21.2%)을 다른 학년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차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만 의미있게 나타난 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따돌림에 대한 공포(15.7% : 2.0%), 상황귀인(19.6% : 0%)으로 귀인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여학생은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많았다(74.5% : 41.2%). 통계적 의미는 없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도 남학생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높았다(73.7% : 54.5%).

이야기3 : 손수레를 끄는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다른 어른이 노인을 도와주는 것을 목격한 상황

다음 <표6>과 <표7>에 이야기3에 나타난 정서의 종류 및 정서귀인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표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죄책감이 가장 많았고(75.7%), 그 다음이 수치심(13.9%)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학년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chi^2 = 24.47$, n.s.).

성차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만 나타났다($\chi^2 = 8.01$, $p < .05$).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죄책감(84.1% : 79.6%)과 수치심(13.6% : 3.7%)을 느끼는 비율이 의미있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보다 중,

표 6. 이야기3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의 종류

범주	학년 성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죄책감		43	79.6	37	84.1	41	77.4	39	78.0	42	68.9	42	87.5	38	74.5	34
수치심		2	3.7	6	13.6	9	17.0	4	8.0	8	13.1	3	6.3	8	15.7	8
죄책감없음		7	13.0	1	2.3	3	5.7	7	14.0	9	14.8	1	2.1	5	9.8	6
기타		2	3.7	0	0.0	0	0.0	2	3.3	2	4.2	0	0.0	3	5.9	0
계		54	100.0	44	100.0	53	100.0	50	100.0	61	100.0	48	100.0	51	100.0	44
χ^2		8.01		3.49		7.23		3.31		5.92		2.49		2.44		
p<.05		n.s.		n.s.		n.s.		n.s.		n.s.		n.s.		n.s.		

학년간 차이 검증 $\chi^2 = 24.47$, n.s.

표 7. 이야기3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귀인

범주	학년 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규범위배		83	40	73	18	64	88	83	06	73	76	33	88	93	56
상황귀인		11	40	5	41	5	49	8	06	31	32	6	52	8	73
개인주의적 가치관		2	73	1	32	2	83	3	06	8	13	7	64	3	95
기타		3	65	1	32	0	00	1	02	3	94	2	24	1	02
계		45	00	44	00	35	00	05	00	16	00	84	00	15	00
χ^2		2.60		2.57		1.55		2.13		2.24		2.26		9.05	
		n.s.		n.s.		n.s.		n.s.		n.s.		n.s.		p<.05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27.62$, n.s.

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만 하다.

이야기3의 상황에서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다른 어른이 도와주는 것을 보고 느낀 정서를 귀인시키는 것으로 규범위배(76.1%)가 가장 많았으며, 상황귀인(14.5%)과 개인주의적 가치관(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chi^2 = 27.62$, n.s.), 학년이 높아질수록 규범위배로 정서를 귀인시키는 경향을 더 많이 보였다.

성별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남학생에 비해서 규범위배로 귀인시킨 비율이 더 높았고(86.0% : 68.2%), 남학생은 상황귀인 비율이 여학생보다 많았다(18.2% : 14.0%).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초등학교 6

학년 남학생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은 상황귀인 비율을 보였으며(21.2%),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개인주의적 가치관(14.6%)으로 귀인시키는 비율이 높았다.

이야기4 : 어머니에게 공부한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어울린 상황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야기4의 상황에서, 죄책감(71.6%)이 가장 많았고, 야단맞을까봐 공포감을 느끼는 비율(20.0%)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chi^2 = 46.30$, $p < .001$).

구체적으로 죄책감은 초등학교 6학년(85.3%), 고등학교 2학년(79.2%)에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1학년(62.6%)과 중학교 2학년(65.7%)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공포감은 초등학교 4학년

표 8. 이야기4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의 종류

범주	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죄책감	43	03	13	50	93	67	63	07	25	28	14	48	03	88	04	48
공포	81	33	11	02	31	52	11	02	5	28	4	38	51	42	8	73
죄책감없음	0	00	2	54	0	00	3	06	2	33	1	12	5	89	3	95
기타	2	73	0	00	1	91	0	00	2	33	2	24	1	02	0	00
계	45	00	44	00	35	00	05	00	16	00	84	00	15	00	44	00
X ²	4.86		4.20		0.20		5.06		5.01		5.33		2.60			
	n.s.		n.s.		n.s.		n.s.		n.s.		n.s.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46.30$, p<.001

표 9. 이야기4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귀인

범주	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거짓말	92	73	72	46	92	75	32	04	72	34	02	71	31	52	92	95
신뢰감위배	5	39	8	28	31	52	41	08	12	43	71	45	71	33	31	52
벌에대한공포	61	62	7	93	7	23	7	04	8	13	7	64	31	52	7	73
상황귀인	0	00	2	54	3	75	4	08	4	66	3	36	4	87	2	93
기타	4	47	0	00	1	91	2	04	1	61	1	12	4	87	0	00
계	45	00	44	00	35	00	05	00	16	00	84	00	15	00	44	00
X ²	9.36		1.12		0.12		13.10		2.57		7.18		8.38			
	p<.05		n.s.		n.s.		p<.01		n.s.		n.s.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72.55$, p<.001

(29.6%)과 고등학교 1학년(25.2%)에서 높았으며, 초등학교 6학년(8.3%)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비율이 높은 학년은 중학교 2학년(13.1%)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정서종류의 경향에서 성차는 없었다.

이야기4의 상황에서 나타난 정서의 종류와 정서귀인의 빈도 및 백분율을 <표8>과 <표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 상황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로 “거짓말”한 것이 나쁘기 때문으로 귀인시킨 비율이 가장 많았고(44.1%), 신뢰감 위배(28.0%), 별에 대한 공포(15.0%), 상황귀인(9.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년간에 의미있었다($\chi^2 = 72.55$, $p < .001$).

즉 거짓말 귀인은 초등학교 4학년(57.1%)에서 가장 많았으며, 신뢰감 위배는 고등학교 2학년(37.6%)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초등학교 6학년(34.9%), 고등학교 1학년(3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이야기5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의 종류

학년 성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범주	n	%	n	%	n	%	n	%	n	%	n	%	n	%														
	죄책감	44	58	04	99	94	59	64	09	05	08	14	48	83	57	74	29	73	18	25	59	73	20	85	98	93	68	55
죄책감없음	7	03	4	1.9	3	75	3	06	9	84	5	40	11	62	3	95	4	1.9	3	55	2	94	8	12	4	19	2	53
기타	3	65	0	00	1	91	1	02	2	33	2	24	2	93	1	02	3	86	0	00	2	94	0	00	1	32	0	00
계	45	00	44	00	35	00	05	00	16	00	84	00	15	00	44	00	55	00	14	00	66	00	44	00	75	00		
χ^2	3.02		0.01		0.49		5.86		4.50		4.66		2.76		n.s.		n.s.		n.s.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15.47$, n.s.

별에 대한 공포귀인 비율은 초등학교 4학년(23.5%)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고등학교 1학년(20.6%)이었다. 중학교 1학년(19.2%), 고등학교 1학년(15.9%)에서는 상황귀인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높았다.

이러한 경향에서 성차는 초등학교 4학년($\chi^2 = 9.36$, $p < .05$)과 중학교 1학년($\chi^2 = 13.10$, $p < .01$)에서만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거짓말(61.4%), 신뢰감 위배(18.2%)로 귀인시킨데 비해서, 남학생은 별에 대한 공포(29.6%)가 여학생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죄책감의 원인을 거짓말(56.9%)로 귀인시킨 비율이 높았으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신뢰감 위배(33.3%)와 별에 대한 공포(25.5%) 귀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야기5 : 오래 사귄 친구와 싸우고 그 친구에게 심한 말을 한 상황

아래 <표10>과 <표11>에 이야기5에 나타난

정서의 종류와 정서귀인의 빈도 및 백분율이 제시되었다.

<표 10>에서와 같이, 친한 친구와 말다툼을 한 후에 심한 말을 하고 느낀 정서는 죄책감(88.0%)이 대부분 이었으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비율은 9.5%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2학년이 가장 높은 죄책감 비율을 나타냈으며(93.1%), 반면에 중학교 2학년의 경우에 죄책감을 안느끼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13.7%). 그러나 이러한 학년간 차이에는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chi^2 = 15.47$, n.s.).

성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죄책감을 느끼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가장 높은 죄책감 비율을 보였다(96.5%). 그러나 성차는 중학교 1학년에서만 의미있게 나타났다($\chi^2 = 5.86$, $p < .05$).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죄책감을 느끼는 비율이 더 많았으며(92.2% : 74.5%), 남학생은 죄책감이 없는 비율을 더 많이 나타냈다

(21.6% : 5.9%).

이야기5의 상황에서 느낀 정서를 귀인시키는 데에는 학년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으나($\chi^2 = 64.83$, $p < .001$), 성차는 초등학교 4학년($\chi^2 = 11.21$, $p < .01$)과 중학교 1학년($\chi^2 = 11.51$, $p < .01$)에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에서 죄책감 원인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본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해서 가장 높았으며(88.1%), 중학교 1학년부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비율이 증가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 다음으로 상황귀인(15.4%), 우정배반(13.5%)의 순서로 정서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귀인은 초등학교 6학년(25.7%)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우정배반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21.4%).

성별로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의 경우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은 비율로 귀인시켰으나, 남학생의 경우 우정배반

표 11. 이야기5에 나타난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귀인

범주	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성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1학년		2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에게상처를 주는 일	82	26	03	28	93	63	53	07	13	85	42	05	42	17	04	49	82	63	93	90	03	23	05	87	73	18	25	29
우정배반	71	58	4	19	7	23	3	06	31	32	01	80	7	73	3	95	5	41	9	46	7	17	8	12	2	54	2	53
상황귀인	6	11	01	72	6	31	01	02	51	62	31	12	41	52	7	73	7	93	5	19	2	94	8	12	5	41	3	35
기타	3	65	0	00	1	91	2	04	2	33	1	12	6	81	1	02	4	19	2	63	2	94	0	00	0	00	0	00
계	45	00	44	00	35	00	05	00	16	00	84	00	15	00	15	00	44	00	55	00	14	00	66	00	44	00	75	00
χ^2	11.21		3.07		0.21		11.51		2.76		6.09		1.38		n.s.													
	학년간 차의 의의도 $\chi^2 = 64.83$, $p < .001$																											

표 12. 학년과 성에 따른 정서 정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

상황	독립 변인	성별	학년별							전체
			초등4 <i>M(SD)</i>	초등5 <i>M(SD)</i>	초등6 <i>M(SD)</i>	중1 <i>M(SD)</i>	중2 <i>M(SD)</i>	고1 <i>M(SD)</i>	고2 <i>M(SD)</i>	
이야기 1	남 (n=348)	남	1.56(0.82)	1.55(0.91)	1.60(1.07)	1.51(0.81)	1.68(0.80)	1.27(0.50)	1.50(0.76)	1.53(0.84)
		여	1.55(0.82)	1.56(0.79)	1.42(0.87)	1.33(0.62)	1.60(0.76)	1.39(0.65)	1.33(0.64)	1.45(0.74)
		전체	1.55(0.81)	1.55(0.85)	1.53(0.99)	1.42(0.72)	1.64(0.77)	1.35(0.60)	1.41(0.70)	1.49(0.79)
이야기 2	남 (n=348)	남	1.89(1.16)	1.74(1.00)	1.85(1.06)	2.10(1.30)	1.93(1.11)	1.68(0.96)	1.98(1.17)	1.88(1.11)
		여	1.64(0.92)	1.50(0.79)	1.60(0.87)	1.55(0.83)	1.84(1.12)	1.64(0.94)	1.63(0.96)	1.63(0.92)
		전체	1.78(1.06)	1.62(0.91)	1.74(0.99)	1.82(1.12)	1.88(1.11)	1.65(0.94)	1.78(1.06)	1.75(1.03)
이야기 3	남 (n=348)	남	1.87(1.12)	1.68(0.94)	2.15(1.22)	1.82(1.09)	2.02(1.19)	1.70(0.87)	1.61(0.75)	1.85(1.06)
		여	1.75(0.86)	2.06(1.13)	1.92(1.05)	1.80(0.94)	2.05(0.87)	1.92(0.95)	1.79(0.75)	1.90(0.94)
		전체	1.82(1.01)	1.86(1.05)	2.05(1.15)	1.81(1.01)	2.04(1.02)	1.84(0.92)	1.71(0.75)	1.88(1.00)
이야기 4	남 (n=348)	남	1.48(0.89)	1.43(0.87)	1.36(0.84)	1.67(1.13)	1.80(1.09)	1.46(0.81)	1.75(0.99)	1.55(0.95)
		여	1.16(0.37)	1.36(0.92)	1.52(0.90)	1.43(0.81)	1.87(1.05)	1.36(0.67)	1.44(0.73)	1.46(0.83)
		전체	1.34(0.72)	1.40(0.89)	1.43(0.86)	1.55(0.98)	1.84(1.07)	1.40(0.73)	1.57(0.86)	1.50(0.89)
이야기 5	남 (n=348)	남	1.96(1.39)	1.83(1.03)	2.00(1.40)	2.04(1.48)	1.39(0.84)	1.27(0.78)	1.57(1.11)	1.76(1.22)
		여	1.50(0.79)	1.58(0.97)	1.63(1.00)	1.67(0.94)	1.55(0.94)	1.42(0.79)	1.37(0.77)	1.52(0.88)
		전체	1.76(1.18)	1.71(1.01)	1.84(1.25)	1.85(1.25)	1.47(0.90)	1.36(0.78)	1.46(0.93)	1.64(1.07)

(31.5%) 비율이 여학생(9.1%)보다, 여학생의 경우 상황귀인 비율(22.7%)이 남학생(11.1%)보다 높았다. 초등학교 4학년과는 달리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죄책감의 원인을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로 귀인시킨 비율이 남학생은 47.1%인데 비해서, 여학생은 78.4%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상황귀인 비율(27.5% : 13.7%)과 우정배반 비율(13.7% : 5.9%)을 나타냈다.

정서의 정도

<표12>는 이야기1부터 이야기5까지의 반응에 학년 및 성별에 따른 정서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각 이야기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의 정도의 결과를 이원변량분석결과 <표 12참조>, 성차는 이야기2($F=10.845$, $p<.001$)와 이야기5($F=3.920$, $p<.05$)에서 나타났으며, 학년차는 이야기

4($F=3.762$, $p<.001$)와 이야기5($F=3.567$, $p<.01$)에서 나타났다. 이를 Scheffé 검증한 결과 이야기4에서 학년별 차이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정서정도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고등학교 1학년 보다 높았다(초등4 < 중2, 초등5 < 중2, 고1 < 중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의 특징을 죄책감을 중심으로 발달적 측면과 성차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인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약속 불이행이란 규범 때문에 죄책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은 도덕판단의 기초로 별에 의존하다가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에 증가함에 따라 내적 평가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는 Bussey(1992)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Bussey(1992)는 유치원생 (5세), 2학년(8세), 5학년(11세), 아동 24명을 대상으로하여 거짓진술과 사실 진술에 대한 정의, 도덕 수준 및 내적 평가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2, 5학년 아동들은 모든 진술을 거의 정확하게 평가한 반면에 유치원생은 거짓진술과 사실 진술의 각각 70%정도를 옳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거짓말은 사실진술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치원생의 경우에 2, 5학년에 비해서 도덕판단을 할 때 별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들의 위협 때문에 시험 답안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죄

책감을 덜 느끼는 것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죄책감 귀인을 따돌림에 대한 공포로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현상이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죄책감 비율이 높고, 남학생은 죄책감을 벌이나 따돌림에 대한 공포로 귀인시킨 본 연구 결과는 Haan(1978)이 시사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형식적 도덕성 측면에서 지체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다는 Haan(1978)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uriel(1975)이 주장한 사회적 인습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할 과제이다. 시험상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면적으로 분노를 더 많이 느낀 본 연구 결과 역시 추후 연구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규범 위배를 죄책감의 근거로 귀인시킨 본 연구 결과는 Izard(1991) 및 김경희(1996, 1997)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또한 초등학교 4, 5, 6 학년보다 중·고등학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규범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는 아들보다는 딸에게 더 엄격한 표준을 적용시키는 한국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태도의 산물이라고 추론될 수 있는데, 이는 추후 연구로 확인될 필요가 있다. 일찌기 Hoffman(1970)도 자녀 양육태도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시사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웃 어른, 어머니, 친구와의 관계상황과는 달리, 이 <이야기 3> 상황에서는 죄책감 이외에 수치심 정서가 많이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수치심은 자기와 관련된 혐오적 사건 때문에 야기된 낙심되고, 수동적이며, 무기력한 정서라고

표현한 Ferguson과 Stegge(1998)의 개념정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도덕적 정서로서 수치심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Hoffman(1998)이 시사한 바와 같이 도덕판단과 도덕적 정서간의 상관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어울린 상황에서 중·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이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죄책감을 별에 대한 공포로 귀인시킨 본 연구 결과는 Bussey(1992)의 결과와 일치된다.

친구와의 다툼 상황에서 저학년보다 고학년에서, 그리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 학습과 관련시켜서, 그리고 Bussey(1992), Haan(1978), Turiel(1975)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자는 죄책감은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적 표준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부정적 정서라고 개념화하고 싶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시각은 Buck(1999), Eisenberg(2000), Hogan과 Cheek(1983), Roseman(1984) 및 Walker와 Pitts(1998) 등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보겠다.

Freud와 Erickson은 죄책감과 양심이 6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으로 주장한 것과는 달리, 김경희(1997)의 연구에서 죄책감이 나타나는 연령이 9세 이후라고 보고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확실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수적으로 본 연구 결과 죄책감을 측정하는데에는 자기 보고식 목록표보다는 구조화된 면접

법이 더 유용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측정도구의 개발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일관되고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도덕적 정서가 개인적이라고 시사한 Hoffman(1983)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건과 관련된 도덕적 정서로서의 죄책감은 규범위배, 약속 불이행,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에 기인한다는 것과, 죄책감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적·별 지향에서 내면화된 도덕 표준에 입각해서 느껴지는 정서라는 것, 그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확실하게 내면화된 도덕적 자기 표준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비해서 일관성있게 죄책감을 덜 나타낸 중학교 1학년은 별 지향에서 내면화된 도덕적 정서를 발달시켜가는 “변화 완충지대”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 (1996). 한국 청년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 : 발달*, 9(1), 1-14.
- 김경희 (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 심리학회 : 발달*, 10(1), 43-56.
- 김경희 (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 심리학회 : 발달*, 12(1), 14-24.

- 류설영 (1998).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 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심종은, 이영호 (2000).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및 사건귀인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 임상, 19(3), 485-499.
- Arsenio, W., Cooperman, S., & Lover, A. (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 Arsenio, W. F. & Lover, A. (1995). Children's conceptions of sociomoral affect : Happy victimizers, mixed emotions and other expectancies. In M. Killen & D. Hart(Eds.), *Morality in Everyday Life : Development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senio, W., Shea, T., & Sacks, B. (1999). *Juvenile offenders' and comparison adolescents' conceptions of the emotional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 elations with attachment and empathy*.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Ausubel, D. B.(1955). Relationships between shame guilt in the socializing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2*, 378-390.
- Benedict, R. (1946).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Boston : Houghton Mifflin.
- Ben-Ze'ev, A. (1997). Emotions and morality. J. Value Inq. 31:195-212.
- Blum, L. A. (1980). *Friendship, Altruism,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pp. 234
- Buck, R. (1999). The biological affects : A typology. *Psychological Review, 106*(2), 301-336.
- Buss, A. H., & Durkee, A.(1957).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343-349.
- Bussey, K. (1992). Lying and truthfulness : Children's definitions, standards, and evaluative reaction. *Child Development, 63*, 129-137.
- Darwin, C. (1872/1965).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2nd e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 Rivera, J.(1984). The structure of emotional relationship.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motions, relations, and health*(pp. 116-145). Beverly Hills, CA : Sage.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 Wiley.
- Draghi-Lorenz, (2001). Rethinking the development of "nonbasic" emotions : A critical review of existing theories. *Developmental Review, 21*, 263-304.
- Eisenberg, N.(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 Norton.
- Ferguson, T.J., Stegge, H., Damhuis, I. (1991). Children's understanding of guilt and shame. *Child Development*, 62, 827-39.
- Ferguson, T.J., & Stegge, H. (1998). Measuring guilt in children : A rose by any other name still has thorns.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 19-74. San Diego : Academic Press.
- Ferguson, T.J., Stegge, H., Miller E.R., Olsen M.E. (1999). Guilt, shame, and symptoms i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47-357.
- Freud, S. (1930/1961).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In J. Strachey (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London : Hogarth Press.
- Haan, N. (1978). Two moralities : Reasoning, action, development and ego regulation in white and black adolesc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286-305.
- Harder, D.W., & Lewis, S. J.(1986). The assessment of shame and guilt.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 (Eds.),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Vol. 6, pp. 89-114). Hillsdale, NJ : Erlbaum.
- Hoffman, M. L. (1970).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pp. 261-359). New York : Wiley.
- Hoffman, M. L. (1977). Moral internalization : Current theory and research.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0).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Hoffman, M. L. (1983). Affective and cognitive processes in moral internalization. In E.T. Higgins, D.N. Ruble, & W.W. Hartup (Eds.), *Social Cognition and Social Development : A Sociocultural Perspective*. pp. 236-74. Cambridge, U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1998). Varieties of empathybased guilt. In J. Bybee(Ed.), *Guilt and Children*, Vol. 4, 91-112. New York : Academic Press.
- Hogan, R., & Cheek, J.(1983). Self-concepts, self-presentations, and moral judgement. In J. Suls & A. G.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elf* (Vol. 2, pp. 249-273).
- Izard, C.E.(1977). *Human emotions*. New York : plenum.
- Izard, C.E(1991). *The Psychology of Emotions*. New York : Plenum.
- Jones, W.H., & Kugler, K. (1990). *Preliminary manual for the Guilt Inventory(GI)*.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ennessee, Knoxville.

- Klein, M. (1948). *Contributions to psycho-analysis*. London : Hogarth.
- Kugler, K., & Jones, W. H. (1992). On conceptualizing and assessing guil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318-327.
- Lewis, H. B.(1971). *Shamen and guilt in neurosi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wis, H. B.(1984). *Freud and modern psychology. Vol. 2 : The emotional basis of mental Illness*. New York : Plenum.
- Lindsay-Hartz, J.(1984). Contrasting experiences of shame and guil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7*, 689-704.
- London, R., Schulman, R. E., & Black, M. S. (1964). Religion, guilt, and ethical standard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3*, 145-159.
- Lynd, H. M. (1958). *On shame and the search for identity*. New York : Harcourt Brace.
- Miller, D. R., & Swanson, G. E.(1966). *Inner Conflict and Defence*. New York : Schocken.
- Mosher, D. L. (1966). The development and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analysis of three measures of three aspects of guil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0*, 25-29.
- Mosher, D. L. (1968). Measurement of guilt in females by self-report inventor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2*, 690-695.
- Mosher, D. L. (1979).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guilt. In C.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 and psychopathology*, pp.105-129. New York : Plenum Press.
- Mosher, D. L. (1988). Revised Mosher Guilt Inventory. In C. M. Davis & W. L. Yarbers.(Eds.), *Sexuality-related measures : A compendium* Lake Mills, IA :Graphic Publications.
- Moulton, R. W., Bernstein, E., Liberty, P.G., & Altucher, N. (1966). Patterning of parental affection and disciplinary dominaces as a determinant of guilt and sex 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356-363.
- Niedenthal, P. M., Tangney, J. P., Gavanski, I. (1994). "If only I weren't" versus "If only I hadn't" : distinguishing shame and guilt in counterfactual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84-95.
- Piers, G., & Singer, M. B. (1953). *Shame and guilt : A psychoanalytic and cultural study*. Springfield, IL : Thomas.
- Reimer, M. R. (1996). "Sinking into the ground" : The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of sham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Review, 16*, 321-363.
- Roseman, I. J.(1984). Cognitive determinants of

- emotion :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motions, relationship, and health* (pp. 11-36). Beberly Hills, CA : Sage.
- Scheff, T. J. (1984). The taboo on coarse emotions. In P. Shav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motions, relationships, and health* pp. 146-169. Beberly Hills, CA : Sage.
- Sears, R. R., Maccoby E. E., & Levin, H. (1957). *Patterns of child rearing*. New York : Harper & Row.
- Tangney, J. P. (1990).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neness to shame and guilt : Development of the Self-Conscious Affect and Attribution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02-111.
- Tangney, J. P. (1991). Moral affect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4), 598-607.
- Tangney, J.P. (1992). Situational determinants of shame and guil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99-206.
- Tangney, J. P. (1998). How does guilt differ from shame? In J. Bybee. (Ed.), *Guilt and Children*, pp. 1-17. San Diego : Academic.
- Tompkins, S.S. (1987). Shame. In D.L. Nathanson(Ed.), *The many faces of shame*. pp.133-161. New York : Guilford.
- Turiel, E. (1975). The development of social concept. In D. Depalma & J. Foley(Ed.), *Moral development*. Hillsdale, N. J. : Erlbaum.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 Wicker, F. W., Payne, G. C., & Morgan, R. D. (1983). Participant descriptions of guilt and shame. *Motivation and Emotion, 7*, 25-39.
- Wolker, L. J., Pitts, R.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 403-19.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 Vol. 15, No. 1, 35 - 55

Moral emotion in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 A developmental consequence for understanding guilt

Maria Kyu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guilt on the basis of its referencing moral standards. Five stories for assessing developmental consequence of understanding guilt were administered to 310 children and 409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and chi-squares were applied to examine grades-and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grades differences in moral emotion. That is, guilt tended to develop internalized moral standards through overt-punishment oriented values increasing with age. It was also found that female subjects used more internalized moral standards than male.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guilt is assessed on the basis of moral standard-violation, breaking promise, cheating, lying, and lack of altruistic behavior or attitud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includ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guilt, and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and suggested.

keywords : children, adolescents, moral emotion, guilt, emotional attribution.